

상습 침수지역 공공하수관로 정비

익산시,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사전예방 나서

하수관로 준설 등 약 30km, 600톤의 찌꺼기·토사 제거

익산시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공공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시는 이달 말까지 영등동 약촌오거리 외 주요 상습 침수구역 10개소 일원의 공공하수관로에 대해 CCTV를 통한 관로 상태 및 침전물 정도를 확인하고, 관로 준설을 통한 집중호우 대비와 함께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까지 주요 침수구역뿐 아니라 택지개발지역, 주거집중지역에 있는 하수관로 준설 등 약 30km 600톤의 찌꺼기 및 토사를 제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맨홀을 정비하고 도로 측구 빗물받이 침전물을 제거하는 등 도로변 침수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매일 20건 이상의 하수도 민원을 즉시 조치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

력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민피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또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하수도 관리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후보 "인물론을 선택해 달라"

정현을 민주당 화당 익산시장 후보는 6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은 민심이 인물론을 선택한 결론"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 전문가인 자신을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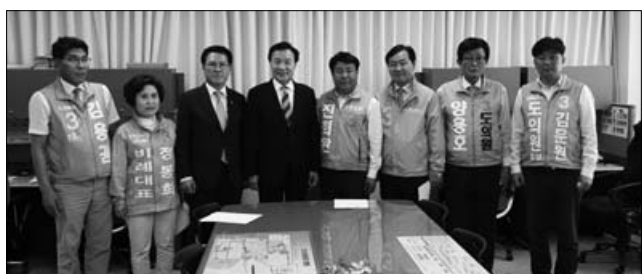
보다 중앙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들이 당보다는 인물론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이와 함께 "보궐선거 당선으로 인한 반쪽 시장을 역임하면서 노후화된 시청사의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을 비롯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왔다"면서 "KTX 혁신 역 신실을 막아내고 익산시를 위한 3대 비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손학규, 군산시 "바른미래당 후보 선택해 달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정운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당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5일 군산을 찾은 바른당 손학규 위원장 일행은 "건강한 아양이 힘을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경쟁해야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양방제 시대가 가고 필연적으로 다당제가 왔다"며 "다당제 가치는 합리적인 보수와 개혁적인 진보를 이끌어 협치정치와 합의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산은 경제 회복 해법을 실행하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16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은 젊고 강한 진희완 군산시장 후보를 뽑아 달라"고 덧붙였다.

또 손학규 위원장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마련한 범정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 가능한 정부 방침을 만들어 GM과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하고 노사민정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 성장산업 기틀을 잘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군산=김정훈기자



민주당 화당 임정엽 전북도지사 후보(오른쪽부터), 박중서 군산시장 후보, 박주현 군산경제비상대책위원장은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전기차 생산 전진기지로 전환하고 군산을 전기차 부품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엠 군산공장 전기차 생산기지로 전환

평화당, "군산을 전기차 부품산업 중심지로 만들 것"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화당 임정엽 전북도지사 후보, 박중서 군산시장 후보, 박주현 군산경제비상대책위원장은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전기차 생산 전진기지로 전환하고 군산을 전기차 부품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화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지만 군산조선소는 여전히 멈춰 있고 한국지엠 군산공장도 문을 닫았다"며 "송하진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임정엽 후보는 "지난달 폐쇄한 지엠 군산공장을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전진기지로 전환하고 군산을 전기차 부품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병든 전북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 투자에 나서도록 민주당 화당 드림팀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주현 군산경제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3년간 8조원을 들여 200억 이상의 선박을 발주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20억을 군산조선소에 가져오면 조선소는 재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박중서 군산시장 후보는 "무너진 전북경제의 중심엔 군산이 있고 모두가 합치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최선을 다해 일 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한다.

5월 시에 따르면 총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 사업은 ▲공동주택 주민 간 상생교류 및 공동협력 사업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참여형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뤄진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0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 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남중동행정복지센터가 '희망 남중나무 43개 열매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희망 남중나무 43개 열매따기'

익산 남중동행정 복지센터에서 전개

익산시 남중동행정복지센터가 '희망 남중나무 43개 열매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희망 남중나무 43개 열매따기'란 남중동 개발사업으로 43개 통 별로 수원사업을 받아 희망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수확하는 사업이다.

남중동은 1916년 3월 남중리로 탄생해 현재 43개통에 약 1만3천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골목길 추억이 있는 단독주택들이 많아 신 도심관에 비교하면 낙후된 곳이 많다.

지난 4일 첫 번째 '희망 남중나무' 키우기의 일환으로 2통의 골목길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고 무단경작을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1차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남중동 예비군중대에서 자원해 환경정비에 앞장섰다.

소문조 남중동예비군중대장은 "지역주민과 항상 함께하는 예비군중대가 되고 싶어 희망 남중나무 열매따기 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플래시몹 서포터즈 모집

군산시는 제6회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플래시몹 서포터즈를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2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간여행축제 플래시몹 서포터즈는 1990년대 분위기의 흥겨운 가락과 춤을 주제로 선보일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이는 이색 마케팅으로 지난 3월에 초등학생 20명을 선발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시간여행축제 홈페이지, 이메일 (unchal17@kocakr) 또는 시청 관광진흥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선발되는 플래시몹 서포터즈는 지난 3월에 선발된 서포터즈와 함께 올해 9월까지 시·의 시간여행축제 홍보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시간여행축제 플래시몹 서포터즈 활동은 초등학생들에게 있어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플래시몹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1990년대의 군산의 일상 모습을 다양한 콘셉트로 구성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축제의 막을 올릴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6개 단지 선정

익산시가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지로 신동 동북아파트를 비롯해 총 6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들 6개 단지에는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총 6,00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

고 아파트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이들 6개 공동주택단지를 올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앞서 사용감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기 지원받은 단지는 4년간 제외)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익산=우병희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